



美, 한국산 제지 덤핑 반발
 한국 신호제지 및 계성제지에 정부 특혜 의혹 제기

미국 상무부와 미국 제지협회가 국내제지업체에 대해 덤핑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제지업체는 “한국정부의 지원 때문에 한국산 제지가 미국 정상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미국 제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미국 상무부와 제지협회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제지협회는 특히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신호제지와 법정관리를 받은 계성제지에 대해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신호제

지는 채권단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업체와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오히려 대미 수출가격은 국내 시판가보다 높기 때문에 덤핑이 아니다”라며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신호제지와 계성제지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은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제지업체는 지금까지 최대 수출지역이었던 중국이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하자 수출 국가를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지역의 경우에는 아트지, 백상지 등의 수출을 늘여나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제지업계에서 미국에 연간 26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제지수입량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불황으로 제지생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계 제지업계가 과잉생산으로 제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지 업체가 생산을 늘리고 대미 수출을 확대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신호제지 관계자는 “신호제지는 국내 주요 제지업체 중 대미 수출량이 가장 적다”며 “일반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제지공업연합회 전무는 “기회가 있을 때 미국을 방문해 제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제지의 원료인 펄프 뿐만 아니라 폐지를 많이 수입해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제지는 오히려 대미 무역 적자”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폐지시장 안정세 보여
연말 폐지 수입률 공급 과잉 및 재고 과다 초래

아시아 폐지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시장은 지난 8월말 이후로 큰 가격폭락이 보이지 않으며, 10월말까지 소폭의 가격변동이 발생했으나 현재 가격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지 수집률은 시기적으로 볼 때 광고지와 포장지의 회수가 높은 이번달과 12월이 가장 절정

을 이루는데, 만약 연말에 바이어로부터의 수요가 적다면 이 높은 수집률은 공급과잉 및 재고과다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바이어들은 작은 오더만 발주하며 2/4분기에 축적해 왔던 폐지에 의존하고 있고, 차후 재고량이 낮아져 정상적인 대량 오더를 내게 되면 폐지시장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띠는 것이 우려되었던 가격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산 OCC는 US\$5/MT 하락한 US\$1백15~1백30/MT CIF에, 유럽산 OCC는 US\$ 5~15/MT하락해 US\$85~1백5/MT CIF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산 ONP는 US\$1백25~1백35/MT CIF로 변동이 없으며 유럽산 ONP는 US\$5/MT 떨어진 US\$1백10~1백20/MT CIF에 거래중이다.

일본, 종이·판지가격 3/4분기 유지
인쇄 및 필기용지, 펄프가격으로 가격 상승

일본에서 대부분의 종이 및 판지가격이 2/4분기 대비 3/4분기에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보드에 대한 수요는 일본의 IT, 전기,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상당수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메이커들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수요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Rengo는 일부공장을 폐쇄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왕자제지그룹 산하의 Takasaki Sanko Paper, Chuo Paperboard, Hokuyo Paper가 지난 10월 1일 왕자 Paperboard로 통합됨에 따라



이 합병은 일본 골판지원재료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밝혀졌다.

인쇄 및 펄기용지 업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왔으나 4월달부터 펄프가격이 \$100/MT 상승함에 따라 최근 Uncoated/coated woodfree paper 및 Bitokoshi의 가격을 10~15%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품질향상 경제실리 촉구
포장용기, 포장·보관방법 개선으로 품질 보존

북한은 최근 각 공장과 기업소에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제실리를 보장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제품의 질을 높이는 관건은 무엇보다 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하고 규격대로 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물리화학적, 전기기계적 성능 △사용상 특성 △안전성 △전기 소모량 △환경 등의 요구 조건을 지켜 수요자 및 기술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표준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를 정확히 측정하고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어떤 원자재를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 제품의 질이 좌우된다”며 “제품 규격이 정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와 연관되는 원자재 및 부분품의 규격 등이 바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과정에 관한 규격을 정확히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제품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포장용기와 포장방법, 보관방법, 수송수단의 선택과 수송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해 제품의 질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조건과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제품의 수명과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노동신문은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소비자 입장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질 제고를 촉구하는 것은생산품의 내수와 수출 향상을 기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공업용 잉크 개발
솔직력 화학 내구성 내차외신성 갖춰

유럽연합은 지난달 도자기나 유리제품, 금속제품의 마크 및 장식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내열성 잉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Brite/Euram3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동안 영국 Coates Electrographics사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성과로서 8백℃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성되지 않는 혁신적인 특수잉크가 개발됐다고 발표했다.

집행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마크, 라벨, 문양 및 장식작업 결과는 주어진 환경조건과 재료 표



면에 적합한 잉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이번에 개발된 특수잉크는 새로운 컴퓨터 프린트시스템과 함께 도자기, 유리,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상 한 제품의 생산에는 초기 개발 단계로부터 마지막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상표를 새기거나 검사, 등급 표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품에 직접 잉크로 문양을 새겨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크는 반제품에 새겨지는 반면에, 장식은 시장에 내놓기 직전의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작업으로 이때 만족스러운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흡착력을 가진 특수잉크의 사용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된 고온용 특수잉크는 재료 표면에 대한 탁월한 흡착력 외에도 우수한 기계적, 화학적 내구성과 내자의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잉크는 부식, 스크래치, 열, 자외선뿐만 아니라 각종 가정용 세척제에 대해서도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의 +44-1761-414471는 하면 된다.



러시아에서 자체 식품 산업이 발전을 함에 따라 다양한 식품 포장 필름(polyethylene / PE, polyvinylchloride / PVC, polypropylene / PP and other polymers, aluminum foil, etc.)에 대

한 수요가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10% 이상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98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식품제조산업으로 외환 위기전에는 대량으로 식품을 수입했으나, 루블화 평가절하 이후 수입제품 가격이 급등해 일반 소비자 구매가 어렵게 되어, 그간 러시아 식품산업은 급속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식품 포장 필름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품목으로는 과자 봉지 등에 많이 쓰이는 Metal covered PP film(Sputtered PP film)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식품 포장용 PP film 연간수요는 31만3천톤인데, 이중 9천톤이 Sputtered PP film 이며, 아직까지 러시아 기술이 낙후되어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식품포장필름 시장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 국내 생산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sputtered PP film 생산 기술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최근 자체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내 대형 식품 포장필름 딜러로 벨기에 'ExxonMobil'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UNIPACK-RUS Co.사(社)는 2003년 말까지 St. Petersburg에 과자 등 식품 포장을 위한 sputtered PP film 생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Tauras-Fenix', 'Russkaya Trapeza' 등 포장기기 생산업체도 식품용 sputtered PP film 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러시아산 sputtered PP film이 외국제품과 품질면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의 sputtered PP film 생산이 약



하기 때문에 수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공식통계에 따르면 PP 수입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99년 이후 나타나 2000년은 45%, 2001년은 무려 150%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요 급증속에 소비자들은 포장필름의 품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포장용 sputtered PP film은 BOPP(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 양면 모두 사용가능)과 OPP(Oriented Polypropylene : 한면만 사용가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BOPP필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extrusion 방식보다도 두께가 더욱 일정한 blowing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식품포장용 sputtered PP필름을 포함한 다양한 flexible packaging film을 판매하는 업체는 10여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ExxonMobil, UCB (벨기에), Manuli Film, Raduchi-Italy(이탈리아), Bifol (폴란드), TFI(태국), Raduchi-Hungary(헝가리), JAC(독일), Polinaf(터키), Dubai-Polifil (UAE, 두바이) 등이다. 이러한 식품포장용 PP film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sputtered PP 필름에 대한 수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속에 최근 공급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서구기업은 러시아내 생산을 위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카콜라 2년만에 옛 디자인 복귀

새 디자인 판매량 저조

코카콜라(COCA-COKE)가 2년전 도입했던 새 디자인에서 바뀌기 전의 디자인을 다시 사용한다고 밝혔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병마개가 따지면서 콜라가 쏟아져 나오는 모양을 병과 캔의 목부분에 인쇄하던 방식에서 예전의 디자인인 흰색과 노란색으로 묶인 코크 리본을 다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성명은 새 디자인이 2003년 생상품부터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러나 코카콜라 캔의 상징색인 붉은 바탕색은 불변이며 미국내 판매 제품에 인쇄되는 "클래식"이란 단어도 그대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미국내 판매 병제품의 경우 뚜껑에 "코카콜라 클래식을 즐기세요"란 글귀가 인쇄돼 있다.

이로써 코카콜라는 전통 주력품인 코카콜라를 비롯해 자매품인 코크 클래식, 바닐라 코크 및 체리 코크 등 모든 탄산음료 제품에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게 됐다. 이들 3개 자매품의 경우 올 들어 이미 새 디자인을 도입한 바 있다.

청량음료 업계 전문지인 비버리지 다이제스트의 존 실러 편집장은 "코카콜라가 디자인을 예전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기존의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카콜라가 디자인을 바꾼 지난 2년간 매출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미



국내 판매량이 2% 감축됐음을 상기시켰다. 같은 기간 코카콜라의 미국 탄산음료시장 점유율도 0.5% 감소됐음을 실러는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점유율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약 2% 상승한 것으로 설명됐다.

호주, 한국산 LLDPE 덤핑조사 수출에 타격 우려

호주 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산 초저 밀도 폴리에틸렌(LLDPE)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호주 폴리에틸렌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퀘노스 프티(Qenos Pty Ltd)사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국과 태국의 업체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진흥공사는 “현재 한국업체들로는 현대석유화학, 삼성물산, SK글로벌, 대림석유화학, LG화학 등이 제조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호주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덤핑여부 판정대상 시기는 2001년 10월 1일~2002년 9월 30일이며, 호주 생산업체 및 시장피해가 확인되면 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 LLDPE 수출실적은 7백20만달러로 전년대비 37.7%나 감소했으나 반덤핑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올 들어 8월까지 실적은 6백10만달러로 전년대비 35.2%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 고품질 접착제 선보여 콜롬비아 UNIFIX사 생산제품

파나마 시장에 고품질의 접착제가 선보이고 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생산 플랜트를 둔 접착제 업체인 UNIFIX는 영국의 고급기술을 도입, ISO 9000 인증하에 이 제품을 생산해 파나마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부터 대규모 기업체,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Master Parts & Services라는 파나마 업체가 대리점 자격으로 수입 유통한다. UNIFIX의 중남미시장 개발 담당자인 Luis Alfonso Sanchez는 “UNIFIX사는 최근 엄정한 시장조사를 거친 후에 소비자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며 “그동안 많은 제품 연구와 소비자 취향 조사가 선행됐다”고 말했다.

파나마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으로는 초강력접착제, 인조손톱수리제, 비가열용접용약 품, 목재용접착제, 나사고정용접착제, 베어링고정용접착제, 강력포장제거용접착제 등이며 특히 산업체 등에서 사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접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재료를 비가열 상태에서도 용접할 수 있게끔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제품은 사용이 간편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고열, 酸에도 견딜 수 있는 제품들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UNIFIX 제품이 점차적으로 파나마 접착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